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1월 2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 26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1. 26.(화)	담당부서	지역경제진흥과
담당과장	박덕열 과장(044-203-4420)	담 당 자	양영훈 사무관(044-203-4426)

산업부, 올해 지방투자보조금으로 민간투자 1조 4천여억원 견인
지역일자리 3,350개 창출 유도
- 71개 기업에 보조금 2,722억원 지원 결정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성윤모)는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(11.20~21)를 열고, 19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867억원(국비 649, 지방비 218)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.

○ 4분기를 포함한 올해 보조금 지원결정 규모는 71개 기업, 총 2,722억원(국비 2,101, 지방비 621)에 이른다.

□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(최장 3년) 중 지방투자 1조 4,588억원, 일자리 3,350개*가 새로 만들어진다.

* 보조금 신청기업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액과 신규고용인원을 합산

○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206억원, 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는 47명이며, 작년과 비교할 때 투자액은 12.5%(23억원), 일자리 창출은 39.6%(13명) 늘어난 수치이다.

□ 올해 보조금 지원기업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, ①산업위기지역 투자 본격화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, ②자동차 소재·부품 및 전기차 분야 투자를 통한 주력산업 재도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① 먼저, 군산시, 거제시 등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* 내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

* 울산시 동구, 경남 거제 및 통영·고성, 창원시 진해구, 전남 목포·영암·해남

- 위기지역 내 투자보조금 신청이 작년 4건(보조금 142억원)에서 올해 12건(보조금 895억원)으로 늘어났으며, 이에 따라 투자규모는 4,139억원, 신규 일자리는 1,399명으로 크게 증가할 계획이다.

《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투자 사례 》

○ 선박 블록 제조업체 G기업은 경남 거제시에 392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일자리 199개 창출 예정('19.11~'21.12)

○ 선박 블록 대형화(100~500ton → 2,000~6,000ton) 추세에 대응한 증설 투자로서, 투자 후 매출액 41% 증가 기대('19년 3,400억 → '22년 4,800억원)




② 다음으로, 올해 총 71개 지원기업 중 17개사(24%)가 전기차, 특수차량 등 관련 산업 생태계에서의 우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한다.

- 전기차 분야에서는 6개 기업이 전기차 완제품, 리튬 이차전지 및 배터리 케이스 생산 확대 등을 위해 군산시, 양산시 등에 2,913억원 규모의 설비투자(보조금 336억원)에 착수하였으며,

- 특수차량 및 부품생산 분야에서는 11개 기업이 트럭기반 버스, 캠핑카 등 특수차량 제작, 알루미늄 등 경량 자동차 부품 생산 등을 위해 3,722억원을 투자(보조금 478억원)한다.

《 전기차 생산을 위한 투자 사례 》

○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M기업은 전북 군산시에 1,839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일자리 643개 창출 예정('19.6~'22.4)

○ '21년부터 준대형 SUV 전기차를 연간 5만대 생산 예정




③ 한편, 1인 가구 증가 등 수요에 따른 간편식품, 국내외 선호도 증가 추세를 감안한 김 등 건강식품 생산을 위해 10개 기업이 1,881억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에 착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.

□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①지방 신증설, ②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, ③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는 최대 34%, 입지는 최대 50%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.

○ 산업부는 기업의 신규 지방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기업당 보조금 지원한도 증액(60억→ 100억원),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* 등 보조금 지원 수준을 높인 바 있으며('18.5.1),

* (기존) 10명 이상 고용시 1~5%p → (개정) 15명 이상 고용시 2~10% 이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급

-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('18.5.1) 및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('19.11.1)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조정* 등 보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.

* (입지보조금) 30% → 50%, (설비보조금) 14% → 34%

○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 대상업종 확대, 광주 등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.

□ 산업부 김용채 지역경제정책관은 "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투자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"이라고 강조하면서, "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의 투자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방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양영훈 사무관(☎ 044-203-44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요

□ **(추진경위) 균특법** 제정과 함께 **지방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**을 위해, '04년부터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

○ 지자체 및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 신·증설 투자('11년), 국내 복귀기업('12년), 개성공단 입주기업('14년) 등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

* (관련 규정)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,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(산업부 고시)

□ **(지원내용) 지방투자기업의 입지·설비 투자**에 대해 지역별·기업규모별로 **투자액의 일정비율**에 해당하는 **보조금**을 차등 지원

<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한도 >

지원비율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매칭비율 (국비:지방비)
수도권 인접지역	(입지) 0% (설비) 6%	(입지) 0% (설비) 8%	(입지) 9% (설비) 11%	45 : 55
일반지역	(입지) 0% (설비) 8%	(입지) 10% (설비) 11%	(입지) 30% (설비) 14%	65 : 35
지원우대 지역	(입지) 0% (설비) 11%	(입지) 20% (설비) 19%	(입지) 40% (설비) 24%	75 : 25
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	(입지) 0% (설비) 14%	(입지) 25% (설비) 24%	(입지) 50% (설비) 34%	75 : 25

□ **(지원절차)** 지자체가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, 산업부는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결정

< 지방투자보조사업 진행 절차 >

